

정치 담화에 나타나는 ‘통속어’에 대한 언론의 담론 구축 양상 연구*

– 대통령 발화를 중심으로

백승주**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통속어의 성격
- III. 통속성의 발견: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 IV. 구어성의 발견: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 V.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발화에 대한 언론의 담론 구성 과정을 ‘통속어’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속어는 단순한 어휘나 표현의 문제가 아닌 언어 표준 또는 표준어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일상성’, ‘통속성’, ‘구어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통속어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양식이지만 표준어보다 낮은 위세를 가졌기 때문에 일반 언중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언어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즉 한국 사회에서 ‘국어’란 모든 성원이 모든 장면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하고 ‘균질한’ 언어 체계로 표상되는데, 이러한 표상 아래 통속어를 비롯한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 변이형들은 은폐된다.

그런데 이렇게 은폐된 통속어가 한국인들에게 다시 발견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발

* 이 연구는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은 노무현과 박근혜 두 대통령의 발화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본고에서는 한국의 언론들이 통속어를 사용한 대통령들의 발화에 대해 어떻게 담론을 구축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통속어 사용은 ‘통속성’이 많이 드러났는데 언론에서는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화 양식을 그의 계급적 정체성과 연결시켜 그가 통치자로서 자질이 없음을 부각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속어 사용의 경우는 구어성이 두드러졌다. 언론에서는 구어성을 인지적 결손(deficit)의 표지로 가공한 후 박근혜 대통령을 정상적인 언어를 가지지 못한 미성숙한 여성으로 타자화시켰다. 두 대통령의 발화에 대한 언론의 담론 구성 양상은 한국 사회의 언론이 국어라는 헤게모니 장치의 일부로 기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열쇠어 : 정치 담화, 이데올로기, 통속어, 헤게모니, 국어

I. 들어가며

1974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녹취록은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인들이 놀란 이유는 단지 대화 내용에 담긴 대통령의 불법 행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미국인들을 놀라게 한 또 다른 이유는 대통령의 말이었다. 닉슨 대통령의 말은 이른바 ‘자유세계의 지도자’라는 지위에 걸맞는 것이 아닌 하역인부의 험담 같았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일상의 대화를 말 그대로 받아 적었을 때 띄는 형태’였다. 전사된 대화에는 대명사와 생략 현상이 빈번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이 많았다.¹⁾ 2016년과 2017년, 한국인들도 이와 유사한 광경을 목격한다. 사상 초유의 정치적 스캔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말’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언론과 SNS는 대통령의 발화에 ‘해석 불가능’이라는 딱지를 붙였고, 급기야 ‘박근혜 번역기’라는 패러디까지 출현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언어 장애를 가진 존재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1) 스티븐 핑커 저, 김한영·문미선·신효식 역, 『언어본능 1』, 그린비, 1998, 388쪽 참조.

이 두 대통령의 발화 양식은 과연 이들의 부도덕함과 부족한 사고 능력을 드러내는 표지인가? 이들 두 대통령의 발화 양식에 대한 시각은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강력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순진한- 언어결정론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언어 문제를 다룰 때 수시로 호출되는 이 강력한 사피어-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기각된 지 오래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말을 한다는 행위가 기호의 의미를 교환하는 의사소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부르디외(Bourdieu)의 통찰처럼 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적인 실천 행위이기 때문이다. 흔히 정치, 경제, 문화를 ‘언어’와 분리시켜 생각하기 쉽지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문제는 결국 ‘언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정 화자가 어떠한 언어 자원을 동원한다고 할 때 그 선택의 의미는 단순히 의사소통에 참여한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사회적 장면과 그 장면을 성립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 및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974년의 미국인들과 2016년, 2017년의 한국인들이 본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먼저 그들이 무엇을 본 것인지 알아보자. 그들이 본 것은 대통령들만이 가진 특이한 발화가 아닌 실제로는 자신들도 사용하고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언어였다. 이를테면 이들은 최초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통속어(vernacular)²⁾이자 구어(口語)가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대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대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넘어서 절대 깨서는 안 될 강력한 금기를 위반한 행위로 인식됐다. 대통령의 통속어 사용은 성스러운 장소에서 금지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즉 통속어는 국가 체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2) vernacular라는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사투리’(이익섭, 2000), ‘일상어’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김하수(2014)의 의견에 따라 ‘통속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의 언어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한편 일반 대중과 언론에게 대통령의 통속어 사용은 좀처럼 해석이 안 되는 불가해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해석이 안 되는 상태를 그대로 남겨 둘 수는 없었기에 언론은 급기야 언어 결정론으로 무장한 ‘유사 언어학자’ 등 각종 전문가를 동원하여 이 현상을 설명하도록 만든다.

이 연구는 대통령의 통속어(vernacular) 사용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한국 언론의 담론 구축 과정을 언어사상론적, 사회언어학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공적 공간에서 통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를 위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를 둘러싼 언론의 담론 구축과정은 현대 한국 사회가 자신들의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II. 통속어의 성격

본 연구에서 ‘통속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vernacular’는 연구자에 따라 ‘일상어’나 ‘사투리’, ‘속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vernacular는 ‘비표준형’, ‘낙인형’(stigmatized form)이라는 용어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vernacular’가 이처럼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는 이유는 이 개념이 가진 다층적인 성격 때문인데, 아래에서 살펴 보겠지만 vernacular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를 표준어(Standard Language) 또는 언어 표준(Language Standard)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³⁾(안의정 외 2013:183 참조)

vernacular의 번역어와 그 성격을 논하기 전에 먼저 ‘속어’라는 용어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vernacular는 ‘속어’라는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 ‘속어’는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된다. 먼저

3) 안의정·김현강·손희연, 「사전 기술을 위한 통속어의 개념과 유형」, 『한국사전학』 21, 한국사전학회, 2013, 183쪽.

slang의 역어로 ‘속어’가 쓰이는 경우이다.⁴⁾ 이때의 속어는 통속적으로 쓰이는 저속한 말 또는 상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속어의 본질적인 특징은 대상에 대한 경멸적인 평가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속어의 판정 여부는 대화 상황 및 참여자들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⁵⁾ 뒤에서 살펴볼 vernacular의 의미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지만 통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일상어로 사용된다는 점은 slang으로서의 ‘속어’의 개념은 vernacular의 개념과 일부 연결된다.

언어적 근대화를 논의하는 연구물들에서도 vernacular의 역어를 ‘속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논의에서는 근대 이전의 언어 상황을 일종의 다이글로시아(diglossia) 상황, 즉 양층 언어 상황이라고 본다. 즉 상위어의 자리는 문어나 고전어가 차지하고 있었고, 하위어의 자리는 일상언어로 사용되던 속어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속어가 상위어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언어적 근대가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또한 본 연구가 vernacular에 대해 취하는 관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vernacular가 크게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특징은 ‘일상어’로서의 성격이다. vernacular는 언어 사용자가 의식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vernacular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무엇보다도 소통 가능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에 두기 때문에 격식이나 표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지역 방언이 곧 vernacular가 될 것이고, 서울 지역 거주자라면 공식적인 상황이 아닌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하는 말투가 vernacular가 될 것이다.

vernacular가 가진 두 번째 성격은 ‘통속성’으로, 여기서 ‘통속성’이란 ‘일반 대중의 일상적인 삶, 즉 통속’⁶⁾을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

4) slang의 역어로서 ‘속어’는 주로 조어법이나 사용 양상 등 ‘어휘’의 층위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vernacular는 단순히 어휘 층위의 문제가 아닌, 음운, 통사, 화용 층위 전체를 포괄하는 ‘말하기의 양식’과 관련된 용어이다.

5) 한국사회언어학회, 『사회언어학 사전』, 소통, 2012, 121쪽.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vernacular는 의사소통 가능성과 효율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언어이다.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사실과 감정을 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vernacular는 소통에 도움이 되지만 한다면 그것의 어원이나 형식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다 사용한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빠지는 행위’를 ‘떡튀’라고 부르는 것이 그 한 예이다.⁷⁾

세 번째로 살펴볼 vernacular의 특징은 ‘구어’로서의 성격이다. 앞서 vernacular가 일상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이 언어가 즉각적인 대면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언어라는 점을 말해준다. 즉 구어는 vernacular의 실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구어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vernacular는 단순히 어휘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 이상의 단위, 대화 전개 방식으로도 나타난다.⁸⁾

본 연구에서는 vernacular를 ‘일상어’나 ‘구어’가 아니라 ‘통속어’로 부르고자 한다. ‘일반 대중의 일상적인 삶’을 ‘통속’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통속성’이 나머지 일상어로서의 성격이나 구어로서의 성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일상어’의 개념은 언어 사용의 상황이 부각되고, ‘구어’의 개념은 ‘문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더 부각되는 반면, ‘통속어’의 개념 안에는 언어 사용자(일반 대중), 언어 사용 장면(일반 대중의 일상적 삶), 언어 사용 목표(소통의 효율성) 등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속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vernacular가 위세

6) 김하수, 『문제로서의 언어3』,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7) 안의정 외, 앞의 책, 185쪽.

8) 안의정 외(앞의 책)에서는 사전 텍스트 구조에 맞춘 통속어의 유형을 어휘 단위(예: 썰얼, 멘붕, 혼남), 통속적 관용구 및 통속적 문장을 포함하는 구 이상의 단위(예: 가지고 놀다, 미치고 팔짝 뛰다, xx빠면 시체다, xx가 밥 먹여 주냐? xx가 그냥 되는 줄 알아?), 버스[빠스], 센티[센치], 에러[에라] 등 통속적 발음을 포함한 비분절적 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어디까지나 사전 기술을 위한 것으로 이를 넘어서서, 발화의 양식, 대화 전개 방식, 대화 유형을 통해서도 통속어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prestige)가 약한 기층의 언어, 일종의 은폐된 언어라는 점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제일 많이 쓰지만 위세가 약하다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사실은 통속어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1996년 미국 오클랜드 교육위원회에서 표준 영어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적인 언어로 소위 AAVE(African American Vernacular English), 즉 ‘흑인 영어’의 사용을 인정하면서 촉발된 논쟁이다.

오클랜드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대중들이 가진 AAVE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미국의 대중들은 오클랜드의 흑인 아동들이 일상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AAVE를 ‘저급하고’, ‘비문법적인 망가진 영어’이자 흑인들의 ‘나태함’을 드러내는 언어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AAVE는 결함이 있는 언어가 아니라 영어의 많은 변이형(variety) 중 하나이며 고유의 문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AAVE는 저급한 언어가 아니라 사용되는 상황과 대상이 다른 언어일 뿐이다. 즉 미국 흑인들은 직장의 회의석상에서는 표준 영어를 사용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상적 대화에서는 AAVE를 사용한다. 특정 언어가 더 우월한 것이 아니라 두 언어가 사용되는 영역이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언어학적 사실과는 관계없이 미국의 일반 대중은 AAVE를 온전한 언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인이 표준어와 통속어를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일반 대중들은 자신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언어(표준어)와 자신의 실제 사용하는 언어(통속어)가 다름을 인지하지 못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준어가 한국어의 수많은 변이형(variety) 중 위세가 가장 큰 변이형일 뿐이며, 자신들은 평소에 그러한 위세가 큰 변이형이 아닌 위세가 약한 다른 변이형, 즉 통속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단일한 언어이다.

이때 ‘단일한 언어’로 호명되는 이름은 ‘국어’이며, 그것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 것이 ‘표준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한국어의 실체는 ‘국어’라는 자명한 이름으로 표상되는데 이 때, 다양한 언어 변이는 그 표상 아래로 사라지고 만다.

이처럼 ‘국어’라는 이름이 다양한 언어 변이를 지워버리는 이유는 ‘국어’가 ‘어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모든 성원이 모든 장면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언어 체제’이고 ‘국어라는 표상이 일단 확립되면 현실의 언어 변이는 이차적인 것이며, 상상되는 ‘국어’의 동일성이야말로 본질적인 것이라는 언어 의식이 생겨나기’(가스야 게스케 2016: 30) 때문이다. 소쉬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랑그(langue)에는 ‘국어’를 투영하고, 그 외의 다양한 언어 변이를 빠롤(parole)의 범주에 넣어 생략해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국어라는 체제는 언어의 철저한 동질화와 평준화를 추진하는 제도와 이념에 의해 유지되는데⁹⁾ 표준어는 이러한 동질화와 평준화의 결과물이자 동력이다. 대통령의 발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 역시 앞서 언급한 국어라는 헤게모니 장치의 작동 체제, 즉 모든 국민 성원이 모든 장면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언어 체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III. 통속성의 발견: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Ferguson¹⁰⁾은 이집트에서의 현대 표준 아랍어와 구어체 아랍어, 그리스의 Katharévusa(고전 그리스어)와 Dhimotiki(민중 그리스어), 스위스에서의 표준 독일어와 스위스 독일어, 아이티에서의 불어와 아이티 크레올

9) 가스야 게스케 저, 고영진·형진의 역, 『언어·헤게모니·권력-언어 사상사적 접근』, 소명출판, 2016, 35쪽.

10) C. Ferguson, “Diglossia”, *Words* 15, 1959.

(Haitian Creole)의 사용 양상을 포착하여 양층 언어 상황(diglossia)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양층 언어 상황이란 한 언어공동체에서 동일한 언어의 두 변이형- 상위어(High variety)와 하위어(Low variety)-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명확히 분리되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집트의 경우 코란(Koran)에서 사용되는 고전 아랍어의 영향을 받은 현대 표준 아랍어가 상위어의 역할을 하는데, 이 상위어가 사용되는 영역은 공식적인 상황으로 설교, 강의, 뉴스, 법률, 정치적 발언 등에서 사용된다. 이와 달리 하위어로 기능하는 아랍어는 구어체 아랍어로 사적인 자리에서 친구나 가족들과의 대화, 쇼핑 같은 상황에서 사용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양층 언어 상황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양층 언어 상황에서 상위어와 하위어는 사용 영역이 엄격히 분리된 상보적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상위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상위어인 표준어를 일상어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양층 언어 상황인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모어는 하위어인데, 한국의 언어공동체 성원들은 표준어를 자신의 모어를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사회의 상황을 Ferguson이 제안한 양층 언어 상황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특히 ‘언어의 철저한 동질화와 평준화를 추진하는 제도와 이념에 의해 유지되는 ‘국어’의 체제¹¹⁾’가 확립된 한국 사회의 경우 이러한 양층 언어적 상황이 더욱 존재하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 표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국어’라는 체제는 다양한 변이형들이 멸균된 상태처럼 인식되거나, 그러한 상태여야 한다고 주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의 균질화는 소위 표준어라는 언어 규범을 제정하면서 이루어지는데 김하수는 이를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한다.¹²⁾ 하나는 방언을 배제하는 우생학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외래 어휘를 배제하는 위생학적 접근이다. 이러한

11) 가스야 가스케, 앞의 책, 35쪽.

12) 김하수, 앞의 책.

우생학적/위생학적인 규범화 과정을 통해 확립된 표준어라는 언어 규범은 이를 한국 사회에 모든 영역과 모든 장면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이렇게 생성된 ‘국어’라는 체제는 한국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하에 기능하는 체계모니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우생학적/위생학적인 규범화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한국 사회가 단일한 언어 변이형만 존재하는 ‘평균 상태’인 것은 아니다. 본래의 양층 언어 상황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적용되지는 않지만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과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은 분명히 구분된다. 양층 언어 상황에서 하위어가 수행하는 역할을 한국어의 경우 통속어(vernacular)가 차지하고 있다. 서울이 아닌 지방의 경우는 이러한 구분이 선명히 드러나는데, 이 경우 통속어는 지역 방언이 된다.

그렇다면 하위어의 역할을 하는 통속어가 상위어인 표준어의 영역을 침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생생한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는 통속어로 인해 말하기의 내용보다 말하기의 방식이 정치 문제화되는 예를 보여주었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는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가진 상징성과, 업무의 성격 때문에 언제나 공식적이고 정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대통령은 그 자체로 헌법 기관, 즉 국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발화를 하는 순간, 그 상황은 한 개인의 발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권력이 실현되는 공공의 장이 된다. 이런 이유로 통상 대통령의 발화는 가장 표준어의 규범에 가까운 형태로 다듬어져서 제시되기 마련이며 따라서 발화의 내용이 아닌 발화의 양식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취임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발화 양식과 관련된 문제로 끊임없이 언론과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1)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말수가 적었다. “격동 30년” 드라마에서도 나오듯, 박 대통령은 “임자”, “추진해 봐”, “잡아 들여” 같은 단문장을 즐겨 쓰곤 했다. 아마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말을 아꼈던 인물이 아닌가 싶다. 박 대통령은 정국이 꼬이고 시름이 깊어갈 때 팔짱을 낀 채 집무실 창밖을 응시할 때가 더러 있었다. 중앙정보부장이나 비서실장이 보고차 들어가도 시선을 그대로 창밖에 두고는 응대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말은 없고, 그렇다고 함부로 말을 걸 수도 없는 긴장된 상황이 몇 분간 지속된다. 보고자의 뇌리에는 “대통령이 무슨 고민을 할까?”, “내가 뭘 해야 하지?” 등등의 생각들이 번갯불처럼 스쳐간다. ① 얼마간 무언(無言)의 대화가 있고 나서, 보고자는 조용히 방을 빠져 나간다.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처리한다. 시쳇말로 “코드”를 읽었다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다변가(多辯家)이다. 역대 최고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발언과 토론, 외부인 초청 오찬·만찬 발언, 참모들과의 토론 등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말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 ②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공개되는 말만 받아 적는 데도 혁혁거린다. 노 대통령이 하루에 쏟아놓는 말을 모으면 책 한권이 될 것이란 푸념도 늘어놓는다.

노 대통령은 ③ 저갓거리에서나 통용될 법한 속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스스럼없이 내뱉는 걸로도 호가 나 있다. “개판”, “쪽수”, “백수”, “깡통”, “깡판”, “새우처럼 팍 오그려서”…; 무수하다. 그런 생생한 표현들이 소시민들에게는 사실 귀에 팍팍 꽂혀서 그리 싫지 않은 측면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다변과 속어, 거친 표현을 언론이 가감 없이 보도하는 데 불만인 모양이다.

그는 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개 적절치 않은 말은 (언론이) 거르는 게 관행이었는데 노무현의 것은 살살이 뒤집어 내서 재미거리로 삼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1970년대의 박정희 대통령과 2000년대의 노무현 대통령은 1세대가 벌어진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④ 누구의 표현법과 통치술이 딱히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노 대통령이 모든 지시를 토론을 거쳐 말로 한다면, 박 대통령은 침묵

과 절제된 언어, 표정, 눈빛, 명령, 고함 등을 다양하게 구사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대북송금사건과 아들의 구속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조차도 말을 무척 아낀다. 꼭 해야 할 때는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하곤 한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잦고 나중에는 자신의 말이 헛이 되기도 한다. 노 대통령의 경우는 그 기복이 심한 편이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도 박 대통령의 “침묵의 미학(美學)”을 원용해 본다면 어떨까. ⑤ 토론과 말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말을 줄이는 데는 참모들의 역할도 짐짓 중요하다. ⑥ 대통령의 의중을 눈빛으로, 감으로, 상황론으로 읽어낸다면 그는 1급 참모다. 박 대통령 곁에는 그런 참모들이 많았다. 국민의 정부 때는 박지원(朴智元) 전 비서실장이 DJ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감지, 정국 운용에 활용해 나름의 평가를 받았다.

⑦ 참모가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이행한다면 2급이요, 질타를 받아야 움직인다면 추후 개각 때 소리 없이 바뀌어야 한다. 꾸중을 듣고도 안 되면 당장 갈아치워야 할 것이다. <趙敏皓 정치부장>

- 세계일보 2003년 6월 4일. <세계타워- 대통령의 말>

- (2) 노무현 대통령의 말실수가 최근 부쩍 줄었다. 측근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스스로 ①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행사에서의 발언도 되도록이면 참모들이 적어준 ‘말씀 자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② 지난해 말부터 특유의 거칠고 투박한 말투가 대통령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중략)...

노 대통령은 “일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라면서 “말실수 안한 지 6개월 정도 되지 않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③ “말실수하면 서민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서민들도 별로래요”라면서 “앞으로 말실수 안할 겁니다”라고 다짐했다. “보통 국민들에게 친구 같은, 허물없

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도 했다.

- 국민일보 2004년 2월 8일,

<[Mr.president] 말실수 줄이려 노력하는 盧대통령>

(1)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화의 문제를 ‘개관’, ‘쪽수’, ‘백수’, ‘깡통’, ‘새우처럼 딱 오그려서...’ 등 ‘저잣거리’에서 통용되는 ‘속어’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속어는 기층의 언어이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사용되지 않기에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그런데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잘 보기 힘들었던 통속어를 ‘발견’하게 된다. 이후 언론은 대통령 발화의 ‘통속성’을 부각시키며 대통령의 말하기 양식이 가진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한다. 그 증거 중 하나는 2003년 3월 감사와의 대화에서 나온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이다. 이 발언의 정확한 내용은 ‘막 하자’이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막가자’로 발언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은 ‘막 하자’라는 발언을 ‘막가자’라는 어휘로 교체하는 것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말하기 양식이 가진 공격성과 통속성을 더 과장하고 이를 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주의하여 볼 점은 언론이 말하기 내용이 아니라 말하기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2)의 ‘특유의 거칠고 투박한 말투가 대통령의 위상을 떨어뜨리고’라는 설명도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을 ‘이거 너무 하네요.’로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로 바꾸어보면 그 내용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의 언론에서는 이러한 ‘말하기 양식’의 문제를 ‘말실수’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말하기 양식과 말하기 내용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즉 대통령의 말과 관련된 사실들을 ‘말실수’라는 해석틀로 바라보게 만들면 대통령의 발화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을 유도할 수 있다.

대통령의 언어라는 점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통속어 사용은 일종의 금기를 깬 것이고, 따라서 이는 매우 유표적인 언어 사용 양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표적인 언어 사용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 설명했듯이 통속어는 소통 가능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에 두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유리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통속어 사용은 이러한 효과를 노린 코드 전환(code-switching)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코드 전환이란 언어 사용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특정 언어(코드)에서 다른 언어(코드)로 언어를 바꾸는 현상을 말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표준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통속어라는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노리고자하는 의사소통적 효과를 얻는다.¹³⁾ 언어가 권력을 행사하고 창출하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언어 양식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통치를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의 ③에서 인용된 ‘말실수하면 서민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말실수는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적절한 통치의 문제로 전환·규정된다. (1)은 박정희 대통령의 말하기 양식과 노무현 대통령의 말하기 양식을 대조하는 전략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말하기 양식이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침묵을 노무현 대통령의 다변과 이분적적으로 대립

13) 노무현 대통령의 발화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인 ‘검사와의 대화’를 보면 한 검사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을 한다. 그런데 이 발화는 억압적인 어투가 아니라 농담조로 이루어지며, 이 발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대화참여자들 사이에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은유적 코드 전환(metaphorical code-switching)으로 의사소통 상황을 재규정함으로써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는 효과를 낸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발화를 통해 심각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해소함과 동시에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두 대통령의 말하기 양식을 ‘효율’ 대 ‘비효율’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과 연결시켜 구성하고 있는 점이다. (1)의 ①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침묵과 절제된 언어를 효율적인 것으로 묘사하지만(얼마간 무언(無言)의 대화가 있고 나서, 보고자는 조용히 방을 빠져 나간다.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처리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하기 양식은 비효율적인 (‘공개되는 말만 받아 적는 데도 헉헉거린다’, ‘하루에 쏟아놓는 말을 모으면 책 한권이 될 것이란 푸념도 늘어놓는다.’) 것으로 묘사된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서는 (1)의 ⑥ ‘대통령의 의중을 눈빛으로 알아내는 1급 참모’와 (1)의 ⑦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아는 2급 참모’를 비교하고 박대통령에게 1급 참모가 많았다는 말을 통해 박대통령이 훌륭한 1급의 통치자임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통치자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텍스트의 구성을 통해서 (1)은 ‘대통령의 표현법=통치행위’라는 도식¹⁴⁾을 구축하고, 부적절한 말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부적절한 통치 행위를 하는 지도자로 그려내고 있다.

(3) 나라를 혼란에 휩싸이게 만든 탄핵 정국의 원인도 노무현 대통령의 말실수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정책 이행 상황이나 정치 행태로 하지 않고 사적인 스타일이나 발언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만 최고통치자가 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한국일보 2004년 4월 7일,

<이 생각 저 생각-공무원·정치인 어느 때보다 말조심>

14) (1)의 ④에서 ‘표현법’을 ‘통치술’과 바로 인접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표현법이 곧 통치술이라는 도식을 암시한다.

(3)에서도 앞서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말하기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하기 양식을 부적절한 통치 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말하기가 탄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탄핵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말하기는 곧 통치 행위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후행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지만’을 이용하여 일반 전제(presupposition,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사적인 스타일이나 발언을 가지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않다)와 반대되는 내용(‘최고통치자가 말에 신중해야 한다’)을 부각시킨다. 이때 말에 신중해야 하는 행위 주체를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통치자’로 지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말하기 방식’이 통치 행위라는 점을 암시한다. 또한 ‘주지’와 ‘사실’이라는 전제유발자를 통해 ‘최고통치자는 말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청자가 당연히 알고 있는 화용적 전제(pragmatic presupposition) 또는 ‘공적 지식’으로 자리매김 시키고 있다. 기사 (3)은 결국 말하기 방식이 사실상의 통치 행위이며, 잘못된 통치 행위가 결국 탄핵이라는 정치적 문제로 연결되었음을 시사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통속어 사용에 대한 언론의 담론 구성 중 눈에 띄는 또 다른 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하기 양식과 그의 계급적 정체성을 연결함으로써 그를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로 자리매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언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4) ▲차예지(25·대학원생) - “솔직함만 필요한 게 아닌데...”

“평소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수준 낮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맞추나’하는 편견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 대면하고 이야기 들어보니 친절하고 소탈했다. 언론을 통해 볼 때보다 친근하고 인간적이었다. 고모부 같은 편안한 인상이었다. 국민에게 가식 없이 다가서려 하는 것은 좋은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솔직함만이 필요한 게 아니다.”

- 오마이뉴스 2007년 2월 28일, < “노무현 로또 당첨될까?”... 임기 4년째, 바닥과 대박 사이-오마이뉴스> 시민기자 10인의 대통령 회견 뒷담화 >

노무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SNS 상의 글이나, 기사에서는 그의 말하기 양식과 그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 언론사에도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판적 언론과 유사한 입장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이 사용한 통속어는 그가 가진 사회적 정보를 말해주는 간접적인 표지(indirect indexing)로, 그 표지가 드러내는 사회적 정보란 노무현이란 인물이 통치자가 가져야 할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 또는 언어 자본(linguistic capital)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언어 자본이란 문법적으로 완벽한 표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특정한 언어 시장(linguistic market)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¹⁵⁾

한국어의 여러 변이형 중 표준어는 행정, 정치, 법, 교육 제도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표준어는 정치 문화적 권력을 가진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사회적 제도에서 통용되는 표준어의 화법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언어 자본-부르디외가 말한 의미에서 ‘상징자본’-이라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통속어 사용은 그가 그러한 언어 자본을 갖추지 못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는 셈이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언어 시장에 출입할 자격인 ‘언어 시민권’이 없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통속어 사용은 그가 자격이 없는 통치자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또 통속어는 균질해야 하는 ‘국어’라는 체제 내에서 일종의 불순물로 인식되며,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통속어 사용은 순수해야 하는 국어

15) 강현석·강희숙·박경래·박용한·백경숙·서경희·양명희·이정복·조태린·허재영, 『사회언어학: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글로벌콘텐츠, 2014, 152쪽.

체제에 균열을 내는 행위로 간주된다. 다음의 칼럼을 살펴보자.

(5) 2002년 김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정치적 사부’ 역할을 할 때의 이야기다. 노 후보가 실언(失言)을 자주 하면서 인기가 날로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는 노 후보가 기자들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후보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① “내가 갈 때까지 지들러”라고 말하고 현장에 도착해 노 후보의 발언 내용을 사전 감수(監修)했다. ‘지들러’는 ‘기다려’의 호남 사투리로 김 의원의 닉네임이기도 하다.

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부터는 대통령의 발언을 감히 감수할 사람이 없어졌다. 노 대통령의 지지도는 상당 부분 말로 까먹었다고 해도 틀림없다. 노 대통령을 국내외에서 자주 만나는 80대 인사는 “나이 먹은 사람을 어찌겠나 싶어 대통령에게 ‘말을 좀 줄이시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를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나로서는 힘들게 꺼낸 말인데 공연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서민적인 표현이 대통령의 권위를 낮추고 국민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② 그러나 아이들이 배울까 봐 걱정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회와 청와대에 있는 386들은 ③ 비속한 말을 쓰지 않으면 세상의 불의(不義)에 침묵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다. 무릎을 치게 하는 절묘한 표현은 없고, ④ 칼끝으로 생채기를 찌르고 후빈다.

인터넷 정치기사마다 젊은 누리꾼들이 편을 갈라 험한 댓글을 주고받는다. ⑤ 청소년들에게 ‘독극물’이나 ‘불량식품’처럼 유해한 언어가 뉴미디어를 타고 확산되고 있다. 막말정치, 편 가르기 정치가 바로 누리꾼 언어의 오염원(源)이다.

... 중략...

정치인들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돼 파문이 일면 ⑥ “앞뒤를 잘라 전체 맥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곧잘 변명한다. 지면과 방송시간의 제약을 받는 언론을 상대하는 공인이라면 앞뒤가 잘려도 문제가 되지 않게 말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언어는 전파력이 높다. ⑦ 한국어를 아름답게 가꾸자면 공인의 언어부터 속옷을 입어야 하겠다. 정진석 추기경이 “단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속옷을 입으라”고 참 좋은 말을 했다.

- 동아닷컴 2006년 9월 26일 <황호택 칼럼 속옷 벗은 言語>

이 칼럼의 제목은 <속옷 벗은 언어>이다. 칼럼 내용에 대한 해석의 틀로 작용하는 이 제목은 노무현 대통령의 언어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속한 정치인 그룹 전체의 언어가 ‘추하고’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는 칼럼 내용 곳곳에 반복되어 드러난다. 즉 (5)의 ②에서는 그들의 언어가 ‘비교육적’이고, (5)의 ③에서는 ‘비속하며’, (5)의 ④에서는 ‘공격적임’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5)의 ⑤에서는 ‘독극물’과 ‘불량식품’ 과 같은 은유를 동원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그룹의 말을 ‘언어의 오염원’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 은유는 이들 정치 그룹의 언어가 ‘비합법적’(독극물, 불량식품)이며, ‘더럽고 불순’하기 때문에(오염원) 모범적인 언어의 철저한 동질성을 추구하는 국어라는 체제 내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국어 체제는 순수하고 균질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상상되며, 따라서 그 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은 동일한 언어를 말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받는다.¹⁶⁾ 이 때문에 국어 체제의 확립은 언어 표준 또는 표준어가 아닌 변이형들 - 대개는 소수 언어와 지역 방언-의 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5)의 ①에서는 내용 전개상 필요가 없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16) 가스야 케스케는 ‘헤게모니 장치’의 주요 개념인 ‘치안’과 ‘규격화’가 ‘국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찰을 보여준다. “다시 언어의 문제로 돌아가기로 한다. 그럼시는 국민적 언어 순응주의가 형성되는 회로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데, 그것들은 위에서 본 규격화의 회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중략)... 그러나 근대 이전의 어느 국가도, 모든 주민이 동일한 언어를 말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바라지도 않았다. ‘국어’란 치안의 확대와 규격화의 진전과 결부된 특이한 헤게모니 장치인 것은 아닐까.” 가스야 케스케 저, 앞의 책, 82~83쪽.

정치적 사부인 ‘김의원’의 별명이자 호남 사투리인 ‘지둘러’라는 어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노무현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 세력이 국어에서 배제해야 할 언어-지역 방언과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룹임을 암시한다.

‘국어라는 표상이 일단 확립되면 현실의 언어 변이는 이차적인 것이며, 상상되는 ‘국어’의 동일성이야말로 본질적인 것이라는 언어 의식¹⁷⁾이 생기는데, 이 칼럼의 필자가 상정하는 아름다운 한국어란 결국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이 제거된 순수한 상태의 ‘상상된 국어’라고 할 수 있다. 페어클럽¹⁸⁾의 주장처럼 담론을 ‘사회적 실행(social practice)¹⁹⁾이라고 할 때, 한국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의 통속어 사용에 대한 담론을 구성하면서 행한 사회적 실행은 이연숙이 말한 ‘상상되는 국어의 동일성이 본질적이라는 언어 의식²⁰⁾의 강화였다. 그리고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둘러싼 담론 구성 과정에서도 다른 양상으로 반복된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국어라는 헤게모니²¹⁾ 장치의 작동을 보여준다. 즉 언론은 그들의 정치적인 의도와는 별도로, 통속어라는 비표준 변이형의 사용에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이는 소위 ‘국어’라는 표상의 공고화에 기여한다. 이를테면 언론은 국어라는 헤게모니 장치의 회로인 것이다.

17) 이연숙 저, 고영진·임경화 역, 『국어라는 사상 : 근대 일본의 언어 의식』, 소명출판, 2006, 19쪽.

18) 노먼 페어클럽 저, 김지홍 역 『언어와 권력』, 도서출판 경진, 2012.

19) 페어클럽에 따르면 담론은 세 가지 방향에서 사회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사회 주체들의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하고, 둘째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지식 및 신념체계를 형성한다. 페어클럽, 앞의 책.

20) 이연숙, 앞의 책.

21) 헤게모니는 단순히 패권이나 주도권으로 해석될 수 없다. “사회 공간 전체가,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교육 장치가 되고, ‘규율’의 학교가 된다는 것이다. 순응주의를 길러내는 자발적 동의라는 것은 그 교묘한 전략에 다름 아니다. 사실 ‘시민 사회는 제재와 구속적 의무 없이 활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압력을 행사하고, 습관이나 사고와 행동 양식과 도덕 등등을 아우르는 가운데에 객관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람시가 헤게모니 장치라고 부르는 것이다.” 가스야 게스케 저, 앞의 책, 79~80쪽.

IV. 구어성의 발견: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의 말 때문에 구설에 올랐지만 그 성격은 달랐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통속성’이 주로 문제가 됐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통속어가 가진 입말의 성격 즉 ‘구어성’이 문제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어의 특징을 살펴보자. 실제 구어를 전사하여 기술할 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점은 구어가 무질서하고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음운 층위에서 구어는 음운의 변화, 축약, 첨가 현상이 많으며 형태·통사 층위에서 보면 문장이 단순하고 주어 같은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현상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한 어순이 도치되거나 연결어미로 문장이 종결되는 현상, 부사어 같은 말이 반복되는 등의 현상도 많이 나타나며 이 때문에 문장 문법의 관점에서 보면 주술 관계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구어 자료도 많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구어의 특징을 비문법적인 것 또는 규칙화될 수 없는 ‘자유로움’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이는 ‘문장 문법’의 관점에서 구어를 기술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식이다. 구어의 기본 단위는 ‘문장’이 아닌 억양 단위이며, 문장 문법으로는 기술되지 않는 내재적 규칙을 가지고 있다.²²⁾ 그러나 문장이라는 틀로 구어의 현상을 바라보면 구어는 설명이 불가능한 무질서와 혼돈의 표본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구어 발화는 이러한 문장 문법의 관점에서 기술되고 논의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화에 대한 평가는 시기에 달랐는데 먼저 대선 후보 시절과 취임 초기의 언론의 평가를 살펴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2) 백승주, 「한국어교육에서의 실제성 연구를 위한 구어의 특징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4,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 학당, 2016 참조.

- (6) 박 후보의 화법은 ① ‘정제된 단문단답형’입니다. 굳터더기 없이 간결하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반문하는 반어법은 꽤 유명합니다. “전방엔 이상이 없습니까”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라는 어록들이 대표적이죠. 이는 ②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이미지로 이어집니다. 포용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③ 문어체 스타일이라는 게 단점입니다. 청중 입장에선 국어교과서를 읽는 듯한 지루함,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TV토론처럼 돌출질문이 나오는 상황에선 유연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유권자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쪽으로 화법이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 연합뉴스TV, 2012년 11월 20일

<대선상황실 그들에겐 특별한 화법이 있다 >

- (7) 박근혜 대통령의 ① 간결한 화법은 말 많은 세상에서 ② 말의 적음이 오히려 더 강력할 수도 있다는 역설을 과시했다. 그의 ③ 다듬어진 문어체는 ④ 절제된 인격의 표현인 듯 고고한 인상을 주었고 ⑤ 때로는 비수처럼 예리한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말년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쓰아붙인 단도직입적 논평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희미해진 뒤에도 사람들 입에 남아 여전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한겨레 2013년 10월 6일,

<염무웅 칼럼> 참 나쁜, 더 나쁜, 가장 나쁜>

대통령 취임 전후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의 특징은 ‘단답형’, ‘간결함’, ‘문어체’로 정리된다. 이러한 말하기 양식은 ‘원칙’, ‘신뢰’, ‘절제된 인격’ ((6) ②, (7) ④, (7) ⑤)등과 같이 긍정적인 가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 양식은 취임 이후 바뀌게 되는데 이에 대한 언론의 평가 또한 긍정적이다.

- (8)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입에서 연일 비유(Metaphor) 화법이 쏟아지고 있다. 평소 딱딱하고 절제된 화법을 자랑하던 ‘정치인 박근혜’와 180도 달라진 말투에 당선인 주변 사람들도 놀랄 정도다. 대선 승리 때가

지 늘 긴장과 절제 화법을 써야 했다면 이제는 ① 여성 대통령이라는 차별된 리더 모습을 구축하기 위해 부드러운 통치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이 최근 분과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쏟아낸 대표적 비유 화법은 ‘손톱 밑 가시’와 함께 ‘신발 안 돌멩이’다. 그는 지난 25일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 ② “신발 안에 돌멩이가 들어 있어서 걷기가 힘들고 다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리 없다”며 새 정부가 현장 애로사항 청취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를 뒤 경제2분과 토론회에서는 ‘분만실 산모, 정책의 등대’ 등 더 많은 비유 표현을 제시해 인수위원들 ③ 귀를 사로잡았다. 그는 분만실에서 진통하는 산모 때문에 안달이 난 남편과 담당 의사 간 대화 사례를 거론하며 ④ “애를 낳는 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어떻게 잘 키우고...(하느냐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적용하는 데만 역할을 한정하지 말고 그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실행되는지 쟁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중략)...

연일 ⑤ 소탈한 단어들을 조합해 제시하는 ⑥ 박 당선인 비유법에 대해 심리학과 교수들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해석한다. 한 국립대 심리학과 교수는 “비유법은 잘만 쓰면 특정 현안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상대방 이해를 높일 수 있다”며 “이는 비유법이 근본적으로 절제 화법을 지향하는 박 당선인과 어울리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여성 대통령이라는 부드러움과 대중적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비유를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심리학계 인사는 박 당선인 비유법은 모두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당선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동원된다는 특징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유는 이해하기도 쉽지만 그래서 더욱 머릿속에 오래 남는 특성이 있다”며 “당선인이 의도적으로 비유를 쓰는 것은 고압적이고 일방향적인 공무원들에게 자기 메시지를 되도록 오래 기억하게 하려는 ⑦ 고도의 통치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 매일 경제 2013년 1월 28일,

<박근혜 당선인, 절제 화법서 비유 발언 변신>

(9) 최근 들어 박근혜 당선인은 자신의 국정 비전과 철학을 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② 금강산 구경을 가자 그래도, 다 좋지만 손톱 밑의 가시 때문에 흥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똑같은 옷을 만들어 놓고 키가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고 다 입으라 하면 그걸 어떻게 입겠습니까?]

‘손톱 밑 가시’나 ‘신발 안 돌멩이’ 같은 말은 국민이 당장 불편해하는 부분을 파악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③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활용하고 유난히 현장을 강조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변화된 화법엔 ④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 SBS 8시 뉴스 2013년 2월 2일,

<내가 가봤더니...박 당선인의 달라진 화법>

취임 이후 언론에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기 양식에 대해 언론들은 ‘귀를 사로잡았다’((8) ③), ‘소탈한 단어’((8) ④),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9) ①, ②)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언론들은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기 양식을 ‘여성 대통령이라는 차별화된 리더- 부드러운 통치 화법’((8) ①), ‘고도의 통치 기술’((8) ⑦)과 같이 통치자로서의 훌륭한 자질과 연관시킨다. 흥미로운 점은 긍정적인 평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다. (8)의 ②는 연결어미의 반복 사용으로 어색한 말이 됐으며, (8)의 ④는 필요한 말들이 생략되어 있어서 기사에서는 생략된 부분을 복원하여 전달하고 있다. (9)의 ② 또한 어색한 문장이다.²³⁾ 이 시기의 언론에서는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기 양식을 이해하기 쉽고 전달이 잘 되는 화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이 시기의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기 방식이 언론에게 특별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3)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앞서 기술한 ‘구어’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전의 문어투 말하기와 다른 말하기 방식에 대한 언론의 호의적인 반응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응과 사뭇 대조적인데, 이는 부르디외가 분석했던 프랑스 베아른(Béarn) 지방의 신문 기사를 연상시킨다. 베아른 지방의 시인에 대한 수상식에서 포의 시장은 표준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고,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 프랑스어만 유일하게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베아른어로 연설을 하였는데, 이를 신문 기사에서는 ‘감동적인 배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르디외는 이것이 ‘감동적인 배려’가 되기 위해서는 프랑스어가 공식 석상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합법적인 언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베아른어로 연설한 시장이 높은 지위 등 여러 측면에서의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르디외는 만약 포의 시장이 충분한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되어 않았다면 베아른어 연설은 ‘감동적인 배려’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²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화 양식에 대한 초기 평가와도 유사하다. 즉 박대통령이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언어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와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전제했을 때야만 박대통령의 발화는 상징적인 이윤- 즉 언론의 호의적인 평가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국정농단 스캔들 이후, 박대통령에게 대통령 지위에 맞는 언어 자본이 없다고 판단된 뒤의 언론의 태도는 정반대로 바뀌게 된다. 상징적인 이윤을 가져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화 양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자로서의 자질 없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용된다.

(10) 3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 대표는 기자간담회 당시 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만연체여서 주어와 목적어가 자주 분실되거나 뒤섞이는 바람에 어법이 맞지 않는 ‘연상

24) 강호신,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언어이론의 이해」, 『프랑스문화연구』 28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14, 155쪽.

지체' 현상을 보인다"면서 "더구나 자신은 오류가 없다는 착각에 빠져 도무지 사과할 줄을 모른다"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② 박 대통령이 불필요한 부사어를 애용하는 버릇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뭐 이렇게’, ‘굉장히’, ‘또’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만연체의 단점이고 어휘력과 논리적 조어 능력이 결핍된 사람들에게 흔히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③ "박 대통령은 TV드라마를 통해 배웠을 법한 저급한 단어를 수시로 썼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그 예로 '뒤로 받고 그런 것', '확 그냥' 등을 들며 "일상 속에서도 잘 쓰지 않을 말들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면서 "미리 준비된 원고나 수첩이 없는 자유로운 질의 응답 시간에 특히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④ 박 대통령의 말이 길어지면 주어와 목적어, 또는 서술어가 꼬이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최 대표는 "정부 시책으로 잘 펴 보자, 그리고 또 특히 그런 문화 쪽이나 창업할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젊은 이들이 있잖아요"라는 대통령의 말을 문장의 앞뒤가 어색하게 연결된 예로 들었다.

- 조선일보 2017년 1월 3일, <박근혜 화법' 전문가, 박대통령 말 분석...“확, 그냥, 뭐 이렇게” 드라마서 배운 저급 단어 사용>

- (11) ① 문장은 흔히 그 사람을 드러낸다. 문장의 길이와 깊이는 사고의 그것들과 일치한다. ② 그녀의 문장은 독해가 되지 않았다. 번역기가 출현했다. 대통령의 문장은 조롱의 대상이 됐다. 국어 교육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반면교사였다. ③ 긴 문장은 구사하지 못했다. 아 니 긴 문장은 사용했지만 거의 비문이었다. 그러니 주어가 없는 짧은 문장만 나열했다. 적어놓은 걸 읽지 않으면 3분 이상 발언하기 어렵다는 소문이 거짓은 아닌 듯했다. 미리 적어둔 게 없이 3분 이상 발언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 경향신문 2016년 12월 1일,
<김경집의 고장난 저울 그림자놀이는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대한 비판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박대통령이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0)의 소위 언어 전문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어 등 주요 문장 성분의 생략 현상, 잦은 부사어 사용, 주술 관계가 맞지 않는 문장의 사용 등도 박근혜 대통령 발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비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0)의 ③에서는 ‘저급한 단어’의 사용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언어 사용 양상은 (11) ①과 같은 사피어-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과 연결되어 박근혜 대통령의 빈약한 사고를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그런데 언론에서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화 양식이 영국의 사회학자 번스타인(Bernstein 1971)이 제안한 ‘제한된 코드(restricted code)’라는 개념에 부합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번스타인은 중산 계층 아동과 하류 계층 아동의 언어 사용 방식을 연구하여 두 집단의 말하기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중산 계층 아동들의 언어를 ‘정교한 코드(elaborated code)’로, 하류 계층 아이들의 언어를 ‘제한된 코드(restricted code)’로 규정하였다. 먼저 정교한 코드(elaborated code)는 다양한 어휘 사용, 통사 규칙을 잘 준수한 복잡한 문장 생성, 접속사의 적절한 사용을 통한 논리적 전개를 특징으로 한다. 정교한 코드의 특징은 맥락 독립적이기 때문에 특정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제한된 코드(restricted code)는 단순한 접속사의 반복 사용, 단문이나 미완성된 문장의 사용, 의미전달을 위한 강세나 억양 등 비언어적인 요소의 동원, 짧은 의문문과 명령문의 사용, 직선적이고 개인적인 표현 사용, 상대방의 배경지식을 전제로 하는 대화 진행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제한된 코드는 맥락 의존적이며 배경 지식을 공유한 소수의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암시적이고 함축적이다.

그런데 번스타인의 코드 이론은 결정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번스타인이 정교한 코드와 제한된 코드라고 명명했던 것이 다름 아닌

각각 ‘문어’와 ‘구어’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번스타인은 ‘문어’와 ‘구어’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특정 계층의 언어적 특질과 연결시키는 우를 범했고, 이는 번스타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시 하류 계층의 아동들이 언어적, 인지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결손 가설(deficit hypothesis)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 발화의 많은 특징도 다름 아닌 ‘구어’의 특징에 해당한다. 소위 언어 전문가가 박근혜 대통령 발화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것들 중 일부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구어의 양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구어에서 그 현장과 맥락을 제거해 버리면 그 내용을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난 지점에서 구어를 바라보면 문제적인 언어 사용으로 인식되기 쉽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발화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가 정교한 코드, 즉 문어체의 발화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적인 상황에서 문어체로 자신의 사고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²⁵⁾ 박근혜 대통령의 발화는 그가 국가 최고 통치자의 자제였지만 역설적으로 정교한 코드를 이용한 공적 의사소통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박대통령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구어적인 특징 자체를 ‘문제’로 파악한다. 능숙하지 못한 문어 사용 양상을 언어 구사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어는 문제가 많은 불완전한 언어이자, 저급한 사고 능력과 수준을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²⁶⁾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기 양식이 대통령 취임 이후 바뀐 것은 아

25) 번스타인의 연구에 따르면 하류층 아이들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정교한 코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6)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구어의 특징이 ‘문제’로 파악되는 또 다른 이유는 구어를 ‘문어’라는 잣대를 바탕으로 살펴보기 때문이다.

닐 것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연출되지 않은 그의 구어가 언론에 의해 노출될 기회가 늘어난 것일 뿐이다. 국정 농단 스캔들을 계기로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고 비로소 ‘구어’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발견한 것은 맥락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해독이 불가능한 불완전한 언어였고, 이는 아래의 인터뷰 기사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적, 인지적 결손(deficit)을 증명하는 데 동원된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는 취임 초기부터 중기까지 원활한 통치를 위한 방법론으로 그려지다가, 촛불 시위 이후 정신병리학적으로 다루어진다.

(12) 신간 <박근혜의 말>(원더박스 펴냄)은 “대전은요?”로 대표되는 박 대통령의 언어를 해석한 책이다. 언어와 생각 연구소 공동 대표인 한국어 연구가 최종희는 <박근혜의 말>에서 ① 박 대통령이 심각한 언어 장애를 앓고 있고, 이 때문에 무대공포증 역시 앓아 타인과 대면하지 않는 특유의 정치 행보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 ② 불완전한 언어 체계는 박 대통령의 사고 체계도 극도로 단순화했고, 그 때문에 그는 피아만이 존재하는 흑백의 세계에 갇혀 정치 복수극을 이어갔다고 했다. 무엇보다, ‘왕의 언어’와 ‘길거리의 언어’ 사이를 오가는 그의 말에서 민주주의자가 아닌 공주 박근혜가 뚜렷이 드러난다고 했다.

▶ 최종희 : ③ 쉽게 말해 언어발달장애를 앓는 인물이다. 불운한 사람이다. 박근혜뿐만 아니라 박근령, 박지만 역시 어느 정도 언어발달장애를 앓는다...(중략)...언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사고도 발달하지 못한다. 하이데거는 “언어가 사고의 집”이라고 했다. 박근혜의 사고도 비정상적이다.

▶ 최종희 : ④ 박근혜 말의 가장 큰 문제는 앞뒷말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술관계가 완전히 불일치한다. 놈 촘스키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심층구조(deep structure)에 문제가 있다. 촘스키에 따르면, 사람의 심층구조는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한다. 하지만 박근혜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심리가 불안정해졌고, 이 때문에 언어 발달 구조가 불완

전했다.

- ▶ 프레시안 : 박 대통령이 ⑤ 공주로 비유될 만큼 우아한 삶을 살았음을 모두가 안다. 최근에는 번기도 남들과 같이 쓰지 못한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말을 아무리 못해도 기본적으로 고상한 언어를 써야 할 것이다. ⑥ 하지만 박 대통령의 말은 때로 충격적일 정도로 공격적이고 솔직하다. 왜 그럴까?
- ▶ 최종희 : ⑦ 결국 박근혜는 TV와 인터넷에서 거친 말을 학습했다. ⑧ 하지만 외양으로는 공주로서 결벽을 추구했다. 이 불일치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그가 긴장하지 않았을 때, 화났을 때 감정적으로 내뱉는 말을 보면 그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길거리 용어, 인터넷 용어가 마구 튀어나온다.
- ▶ 최종희 : ⑨ 정치인 박근혜 언어의 특징은 한 마디로 ‘언어 성형’이다. 물론 모든 정치인은 언어를 성형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교정(political correctness, PC함)이다. ‘감옥’이라는 말이 부정적이니 ‘교도소’로 수정하는 식이다...(중략)...하지만 ⑩ 박근혜 언어 성형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무식함을 숨기려 화려함을 억지로 구사한다.

- 프레시안 2016년 12월 22일,

<‘근혜체’, 무지가 과시욕을 만나다-인터뷰 ‘박근혜의 말’ 저자 최종희>

(12)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대한 책을 출간한 자칭 언어 전문가가 진보 온라인 매체와 한 인터뷰 내용이다. 이 유사 언어 전문가의 발언은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을 포함한 많은 언론사에 소개되어 반복, 재생산되었다. (12)의 ①, ②, ③, ④의 발언을 통해 이 전문가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된 언어를 갖지 못한 ‘비정상’의 범주로 넣어 버린다.²⁷⁾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그의 발화가 통치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회적 계급의 표지임을 보이는 방향으로 담론이 구성되었다

27) 이 인터뷰에서 촛스키의 ‘심층 구조’와 관련된 발언은 완전한 궤변이라고 할 수 있다. 촛스키가 말하는 생성 문법은 환경에 관계없이 인간이 생득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면, (12)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화를 정신 병리의 문제를 가진 ‘환자’의 표지로 설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상적인 언어를 갖지 못한 존재로 묘사한다는 것은, 박대통령이 언어를 통한 ‘사고 능력’이 떨어지며, 사회와 ‘언어를 통한 교류’를 할 수 없는 존재((12)의 ⑦)임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12)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해석은 ‘국어’(national language)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는 18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계몽 언어학의 기획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계몽의 언어학에서는 언어에 의한 교류만이 인간에게 있어서 ‘내적 세계=사고’와 ‘외적 세계=사회’를 연결하는 유일한 계기라고 여기고 그 반대항에 언어가 결여된 존재인 ‘야생아’와 ‘농아자’를 타자로 설정하는데,²⁸⁾ (12)에서도 계몽의 언어학과 마찬가지로 박근혜라는 인물을 정상적인 언어를 가지지 못한 존재로 타자화하고 있다.

(12)에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을 ‘공주’로 지칭하거나, 편견을 배제한 용어 사용인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란 용어를 ‘언어 성형’이라고 부르면서, 언어적 결손을 ‘여성성’과 연계시키는 모습이 보인다. Jespersen²⁹⁾이 여성어의 특징을 여성의 언어적·인지적 피상성에 기인한다고 해석한 이래 이러한 시각은 흔하게 볼 수 있으나³⁰⁾ (12)가 흥미로운 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화를 단순하게 여성성과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여성상(‘공주’, ‘성형’을 안 한 여성)을 설정해 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한 여성상에서 벗어난 범주-발달이 멈춘 미성숙한 여성-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12)에서 주장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화에 나타나는 언어적 ‘결손’이 (12)에서 ‘언어 발달 장애’를 주장하는 것만큼 심각한 ‘결손’인

28) 가스야 케스케, 앞의 책, 155~157쪽.

29) O. Jespersen,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s*. London: Allen and Unwin, 1922.

30) 강현석 외, 앞의 책, 170쪽.

지 따져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조리 없이 말을 하는 것이 정도가 심한 것은 맞지만, 사실 그의 말을 바라보는 기준이 구어가 아니라 문어라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문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10)에서 박근혜의 말을 ‘만연체’로 설명하고, (11)에서 ‘문장이 독해가 되지 않는다’(②), ‘긴 문장을 말하면 비문이 된다(③), (5)’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확인되는데, 이러한 문제점³¹⁾들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글말 즉 ‘문어’의 기준으로 분석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구어는 문장 단위가 아닌 억양 단위로 발화가 이루어지며,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화가 조직되기 때문에 맥락이 중요하다. 또한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문장 문법의 입장에서 구어는 무질서한 혼돈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어는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규칙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앞서 지적했듯이 대통령 발화의 문제점은 정교한 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의 발화는 문어 스타일로 말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인지적 장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화 중 번스타인이 ‘제한된 코드’라고 착각했던 구어성에 주목하고 이를 비정상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담론이 문어 문법을 바탕으로 구축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구어의 특징이 비정상의 범주로 분류되는가?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발화를 둘러싼 담론 구축 과정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어라는 체제의 헤게모니 장치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는 언어 규범으로 구체화되는데, 가스야 게스케에 의하면 국어라는 체제는 이러한 언어 규범이 ‘국민’ 전체의 구어 영역에도 규범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확립된다. 근대 국가에서 방언과 소수 언어를 향한 억압 정책이 탄생하는 것은, 언어 규범이 모든 구어의 영역

31) 이는 이전의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문어체 스타일’(⑥ ③), ‘다듬어진 문어체’(⑦ ③)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을 포괄하려고 하는 권력 의지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³²⁾ 그런데 언어 규범은 문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 규범이 구어의 영역을 포괄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문어의 규칙을 구어에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언어 규범을 구어에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일상에서도 언어 규범이 작동함을 인식시키는 것으로, 국어 체제의 헤게모니 회로 안에서 ‘국민’은 문어의 규범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실제 구어 발화가 그러한 규범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게 한다. 이를테면 한국인들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우연히 자신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구어의 모습을 발견했지만, 국어라는 헤게모니 장치는 한국인들이 그 구어의 모습을 비정상적으로 여기게 만들었던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의 발화를 둘러싼 담론 구성 과정을 ‘통속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통속어란 단순히 어휘나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표준 또는 표준어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언어 양식이다. 긴장을 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하려 할 때 우리는 ‘통속어’를 사용한다.

소통 가능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통속어는 ‘일상성’, ‘통속성’, ‘구어성’이라는 속성을 가지며, 이런 이유로 통속어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양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속어는 표준어 또는 언어 표준에 비해 낮은 위세를 가졌기 때문에 일반 언중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언어 양식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통속어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은폐된 언어 양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은폐가 ‘국어’라는 헤게모니 장치의 작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32) 가스야 가스케, 앞의 책, 189쪽.

보고, 대통령의 발화 속에 나타나는 통속어를 언론이 어떻게 담론으로 구성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때 말하는 ‘국어 체제’란 순수하고 균질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상상되는 것으로, 이러한 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은 모든 장면에서 동일한 언어를 말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받는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체제는 표준어의 확립으로 유지되는데 이는 곧 지역 방언 및 사회 방언을 비롯한 현실의 많은 변이형의 배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통속어의 사용은 국어 체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기의 위반이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의 발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더욱 유표적이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는 언론이라는 국어 체계모니 장치의 회로가 그러한 금기 위반에 대응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통속어의 속성 중 통속성을 많이 드러내는 발화의 양상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언론이 말하기 내용이 아닌 말하기의 양식을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언론은 말하기의 양식을 통치 양식과 연결시킨 후, 말하기 양식의 부적절함을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방향으로 담론을 구성해 나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통속어 사용을 그의 계급적 정체성과 연결시키며, 그가 통치 계급이 가져야 할 언어 자본을 가지지 못했음을, 즉 통치자로서의 자질 없음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발화가 ‘통속성’이란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발화는 ‘구어성’으로 인해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발화에 나타난 구어성은 언론에 의해서 언어적, 인지적 결손(deficit)의 표지로 가공된다. 이러한 담론 구성 과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적인 언어를 가지지 못한 미성숙한 여성으로 타자화되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발화에서 드러나는 구어성은 그가 대통령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처럼 구어를 비정상의 범주로 분

류하는 이유는 국어 체제가 문어를 바탕으로 하는 언어 규범 위에서 있으며, 이 언어 규범은 모든 구어의 영역을 포괄하려는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대통령의 발화를 통해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통속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통속어 사용은 균질한 언어로 상상되는 국어 체제에 균열을 내는 행위이며, 이는 언론의 담론 구성에 의해 금기의 위반으로 규정되었다. 이렇게 두 대통령의 발화를 둘러싼 언론의 담론 구성 양상은 언론이 국어라는 헤게모니 장치의 일부임을 증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가스야 게스케 저, 고영진·형진의 역, 『언어·헤게모니·권력 - 언어사상사적 접근』, 소명출판, 2016.
- 강현석·강희숙·박경래·박용한·백경숙·서경희·양명희·이정복·조태린·허재영, 『사회언어학: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글로벌콘텐츠, 2014.
- 강호신,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언어이론의 이해」, 『프랑스문화연구』 28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14, 127~164쪽.
- 김하수, 『문제로서의 언어3』,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_____, 「진짜 한국어, 다시보기」, 『‘국어’의 사상과 실제 국제 심포지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6, 19~32쪽.
- 백승주, 「한국어교육에서의 실제성 연구를 위한 구어의 특징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44,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 학당, 2016, 154~190쪽.
- 안의정·김현강·손희연, 「사전 기술을 위한 통속어의 개념과 유형」, 『한국사전학』 21, 한국사전학회, 2013, 177~209쪽.
- 이연숙 저, 고영진·임경화 역, 『국어라는 사상 : 근대 일본의 언어 의식』, 소명출판, 2006.
- 이익섭, 『사회언어학』, 민음사, 2000.
- 페어클럽, 노먼 저, 김지홍 역 『언어와 권력』, 도서출판 경진, 2012.
- 핑커, 스티븐 저, 김한영·문미선·신효식 역, 『언어본능 1』, 그린비, 1998.
- 한국사회언어학회, 『사회언어학 사전』, 소통, 2012.

Bernstein, B., *Class, Codes and Control, Vol I: Theoretical Studies towards a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Ferguson, C., "Diglossia", *Words* 15, 1959, pp. 325~340.

Jespersen, O.,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s*. London: Allen and Unwin, 1922.

보도 자료

세계일보 2003년 6월 4일, <세계타워- 대통령의 말>

국민일보 2004년 2월 8일, <[Mr.president] 말실수 줄이려 노력하는 盧대통령>

한국일보 2004년 4월 7일, <이 생각 저 생각-공무원·정치인 어느 때보다 말조심을>

동아닷컴 2006년 9월 26일, <황호택 칼럼> 속옷 벗은 言語>
 오마이뉴스 2007년 2월 28일, <“노무현 로또 당첨될까?”... 임기 4년째, 바닥과 대
 박 사이-오마이뉴스> 시민기자 10인의 대통령 회견 뒷담화>
 연합뉴스TV, 2012년 11월 20일 <[대선상황실] 그들에겐 특별한 화법이 있다>
 매일 경제 2013년 1월 28일, <박근혜 당선인, 절제 화법서 비유 발언 변신>
 SBS 8시 뉴스 2013년 2월 2일, <내가 가봤더니...박 당선인의 달라진 화법>
 한겨레 2013년 10월 6일, <[염무웅 칼럼]- 참 나쁜, 더 나쁜, 가장 나쁜>
 경향신문 2016년 12월 1일, <[김경집의 고장난 저울] 그림자놀이는 끝났다>
 프레시안 2016년 12월 22일, <‘근혜체’, 무지가 과시욕을 만나다-인터뷰 ‘박근혜
 의 말’ 저자 최중화>
 조선일보 2017년 1월 3일, <‘박근혜 화법’ 전문가, 박대통령 말 분석...“확, 그냥,
 뭐 이렇게” 드라마서 배운 저급 단어 사용>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discourse on
vernacular in political discourse:
Focusing on presidential speech

Baek, Seung-joo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cess of constructing the discourse of the media on the utterances of President Roh Moo-hyun and President Park Geun-hye, focusing on the concept of “vernacular”. Vernacular is a concept that should be grasped in relation to a language standard or a standard language, and has characteristics of ‘everydayness’, ‘popularity’, and ‘orality’. In addition, vernacular refers to the form of speaking rather than to vocabularies or expressions. This is the most commonly used language form in our lives, but it has lower prestige than the standard language, so ordinary people do not realize that they are using this language form. But what happened was that concealed vernacular was found in Koreans. This discovery was made through the speeches of two presidents, Roh Moo-hyun and Park Geun-hye. In this article, I examined how Korean media constructs discourses about presidential utteranc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resident Roh Moo-hyun’s use of vernacular has revealed popularity aspect of vernacular. The media has linked the speech style of President Roh with his class identity and emphasized that he is not qualified as a ruler. In the case of President Park Geun-hye, many characteristics of spoken language were found in vernacular forms used by president Park. In the media, Park’s speech, which show a lot of spoken characteristics, are presented as evidence of cognitive deficits. Based on this, the media made President Park Geun-hye as an immature woman who does not have a normal language. The aspects of the discourse of the media about the speeches of the two presidents

shows that the media in Korean society functions as a part of a hegemonic device called ‘national language’.

Key words : political discourse, vernacular, ideology, hegemony, national language

투고일 : 2017. 08. 19. / 심사일 : 2017. 09. 10. / 게재확정일 : 2017. 09. 18.

